

<div>더불어</div> <div>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div>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12.(목)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4. 12. 12.(목) 16:30
위원장	박채아(010-3809-6273)	담당자	집행위원 심우일 (010-6739-0915)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촉구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행보를 “헌법을 짓밟는 불법 행위의 실토”로 규정하며,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탄핵안 표결 무산을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방관은 곧 공범”이라고 경고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명심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국민은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탄핵 표결을 앞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1.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촉구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이름을! 의원님의 선택을!

오늘 윤석열의 내란 실토 담화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불법 계엄을 시행한 자가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다니, 그 후안무치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구치소가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탄핵안 표결 무산은 명백한 국민 배신이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촛불을 든 민심의 경고를 또다시 외면하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광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현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정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14일 본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십시오.

더 이상의 방관은 곧 공범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